



Original Article

A Comparative Study on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e Infant's Feeding Method

Lee, Soo Yeon¹⁾ · In, In Soo²⁾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je College 2)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영아모의 수유방법에 따른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 스트레스

이 수 연¹⁾ · 이 인 수²⁾

1) 거제대학 간호과 부교수 2)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e infant's feeding method.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257 mothers of infants aged 5~7 months. 145 breast-feeding mothers and 112 bottle-feeding mothers participated. The Maternal Role Confidence Scale and Parenting Stress Index(PSI) were used. **Results:** The score of maternal role confidence of breast-feeding mothers (3.28)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bottle-feeding mothers(2.84). In addition, the parenting stress level of breast-feeding mothers(1.80) was lower than that of bottle-feeding mothers(2.97). However, the scores of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the parenting stress level were not different according to the mother's and infa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score of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parenting stress levels($r=-.55$, $p<.001$). **Conclusion:** Breast feeding mothers had more confidence of their maternal role, and a lower parenting stress level. Therefore, nurses must encourage

infant mothers to breast feed since it is the best option for mothers as well as infants .

Key words : Mothers, Parenting, Stress, Breast feeding, Infant

서 론

인간에게 인간의 젖을 먹인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당연한 것이다. 모유수유는 아기의 영양학적인 측면, 면역이나 항알러지 및 질병 이환 감소, 신체발달, 인지발달, 어머니의 신체 회복, 난소암과 유방암 발생 저하, 산후 비만증과 산욕기 우울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며 우유물 준비, 젖병 소독이나 감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성이 장점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모유수유를 통해 어머니와 아기의 접촉이 늘면서 모아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어머니에게는 모성애를 아기에게는 신뢰감과 안정감을 발달시키며 모아 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다.

투고일: 2006. 8. 16 1차심사완료일: 2006. 8. 20 2차심사완료일: 2006. 8. 22 3차심사완료일: 2006. 9. 5 최종심사완료일: 2006. 9. 8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Soo Yeon(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je College

Jangseungpodong, Kojeshi, Kyoungnam 656-701, Korea

Tel: 82-55-680-1585 Fax: 82-55-680-1517 E-mail: sylee@koje.ac.kr

지금까지 모유수유는 모든 어머니가 출산 후 자연스럽게 획득하는 양육행동으로 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유수유 실천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간호 문제로 인식한 간호학자들은 모유수유 감소 현상에 대한 요인을 찾거나(Choi, Lee, Youn, Sim, & Choi, 1996) 산육모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Lee, 2003), 산모의 모유수유 경험을 확인하거나(Kim & Yang, 1997) 모유수유 실천을 도와주기 위한 간호중재의 필요성과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Jang, 2005; Jeong, 1997)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연구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어머니의 모유수유 저해 요인을 확인하여 제거하고,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높이고, 모유수유를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모유수유 실천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계속적인 모유수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동시에 대국민 홍보로서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알리고 모유수유를 위한 여건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간호협회에서는 1995년부터 '엄마 젖먹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모유수유율은 1985년 59%에서 1994년에는 11.4%, 2000년에는 10.2%로 매우 열려할 수준이었으나 2003년에는 16.5%(Kim, 2003)로 약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유수유는 어머니로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경험이라 할 수 있으며 아기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수유방법이지만 한편으로는 수유모가 아기에게 완전히 귀속되어야 하므로 자유와 독립성이 상실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였으며, 2~3시간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모유수유는 수유모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Wong, Hockenberry, Wilson, Winkelstein, & Kline, 2003).

부모가 육아과정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 변인으로 인식하면서(Abidin 1992), 성장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생후 3~4개월의 영아를 가진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시도되었다(Kim, 1998). 탁아방법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Yoo, Lee, & Chae, 1998), 아토피 피부염 환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Yoo & Kim, 2004), 초산모의 양육스트레스(Kim, et al., 2005), 산후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관계(Ahn & Oh, 2006)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주요 양육행위인 수유방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모유수유는 어머니의 양육 행위 중 대표적인 것으로 단순히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양육 행동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영양 공급 방법으로서의 의미 외에도 아기와 어머니 사이에 사랑스럽고, 친밀한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독특한 의

사소통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만족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어머니의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어머니로서 역할 수행이나 모아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alandro, 2000).

모유수유가 모아애착 간에는 명백한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으나(Bang, 1984), 이것이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연구는 주로 산육초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역할 수행 자신감이 인지된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보는 것이었으며, 신생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Koo & Moon 1998)와 영아모를 대상으로 어머니가 지각한 영아기질이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보는 연구가 있었다(Lee, Kang, Park, Hwang, & Mun,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모의 수유방법에 따른 어머니 역할 자신감과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하는 연구를 통하여 영아모의 역할 자신감을 높이고,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모유수유모와 조제유수유모의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 스트레스를 비교하는 것으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모유수유모와 조제유수유모의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 모유수유모와 조제유수유모의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2. 용어의 정의

1)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

어머니로서의 능력에 대해 어머니 스스로가 지각하고 있는 자기 효능감(Lederman, Weingarten, & Lederman, 1981)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Lederman 등(1981)이 개발한 산육기 자가평가 도구 중 모성발달과업 대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2) 양육 스트레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서, 본 연구

에서는 Abidin(1990)이 개발한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으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5~7개월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모유수유모와 조제유수유모를 대상으로 어머니 역할 자신감과 양육 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모유 수유모는 2005년 경상남도 간호사회 제 4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가한 5, 6, 7개월 영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제유 수유모는 경남 J시와 K시의 보건소, 종합병원의 소아과 외래에 예방접종이나 건강증진 목적으로 내원한 5, 6, 7개월 영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회수된 자료 중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모유수유모 145명, 조제유수유모 112명으로 총 257명이었다.

3. 연구 도구

1)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은 Lederman 등(1981)이 개발한 8개 척도 총 87문항의 모성 적응 측정을 위한 산욕기 자가평가 도구(Postpartum Self-Evaluation Questionnaire)중 제 5 척도인 모성 발달과업 대처 능력에 대한 자신감(Mother's confidence in Her ability to Cope with the tasks of Motherhood) 척도로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자신감을 측정하는 14개 문항이다. 이는 Lee(1992)가 번안하여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측정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산모의 부모 역할 및 영아 행동을 해석할 수 있거나 영아 요구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어머니 스스로 의심스러워하는 정도를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다. Likert 유형의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다' 2점, '많이 그렇다' 3점, '매우 많이 그렇다' 4점으로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에는 산후 3일째 되는 산모 91명과 산후 6주째 되는 산모 58명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을 때 Cronbach's alpha는 .62, .82였고, Lee(1992)가 번안하여 산욕기 초산모 6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4였으며, 1개월에서 12개월 육아상담실에 방문한 영아모를 대상으로 한 Lee 등(2003)의 연구에서는 .79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80이었다.

2) 양육 스트레스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은 부모-자녀 체계의 역기능적인 측면이나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요인을 밝히고자 개발된 부모용 자가보고식 질문지로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Kim(1998)이 번역과 수정 보완한 후 3~4개월 영아모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 도구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근원에 따라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부모의 스트레스(부모 영역) 12문항,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부모-자녀관계 영역) 12문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아동 영역) 11문항을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영역 마지막 2 문항인 '당신 아이가 성가시게 만드는 일들을 잘 생각해보고 몇 가지 정도인지 계산해 보십시오(예: 운다, 칭얼댄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등). 여러분이 생각한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번호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와 '아이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있는 데로 적어주십시오'라는 개방형 질문을 제외한 34문항을 사용하였다. Likert 유형의 5점 척도로, '정말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잘 모르겠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정말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1998)의 3~4개월 영아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가 부모영역 .72, 부모-자녀 관계영역 .85, 자녀영역 .89이었고, 전체는 .91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모유수유모 대상 자료수집은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당일인 2005년 9월 8일에 이루어졌다. 대회 접수 시에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회수하였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응답 내용이 모유수유아 선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연구보조원은 G대학교 병원 신생아실에 간호사로 근무하는 간호학전공 석사과정 대학원생으로, 자료수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조제유 수유모 대상 자료수집은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대상자가 보건소, 소아과 외래 대기실에 있는 동안 연구보조원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하게 한 다음 바로 회수하였다. 대상자에게 성실한 응답을 유도하고

갑사를 표시하기 위해 작은 선물을 제공하였다. 설문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이었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χ^2 test로 분석하였다.
- 모유 수유모와 조제유 수유모의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모유 수유모와 조제유 수유모의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는 t-test로 검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검증하였다.
-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모유수유모 145명과 조제유수유모 112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모유수유모, 조제유수유모 모두 26~30세가 가장

많았으며(53.1%, 54.5%), 31세 이상(42.1%, 41.1%), 25세 이하(4.1%, 4.5%)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 257명의 86.0%가 전업주부였고, 취업주부는 13.2%였으며 두 집단간의 취업상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모유수유모 집단은 이후 출산 계획이 있다고 한 경우가 57.2%, 조제유수유모는 43.8%로 모유수유모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5.69$, $p<.05$). 아기를 처음 만져본 시기는 산후 1일 이내가 모유수유모 56.6%, 조제유수유모 44.6%로 모유수유모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4.05$, $p<.05$). 육아 정보를 구하는 곳은 모유수유모와 조제유수유모 간에 책($\chi^2=15.2$), 의사($\chi^2=3.52$), 간호사($\chi^2=25.5$), 대중매체($\chi^2=22.7$)에서 조제유수유모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모유수유모와 조제유수유모의 연령, 취업여부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이후 출산계획, 아기를 처음 만져본 시기, 육아 정보를 구하는 출처에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Table 1>.

257명 영아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 257명 중 남아는 52.1%, 여아는 47.9%였으며, 영아의 개월수는 5개월(30.4%), 6개월(35.8%), 7개월(33.4%)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출생 순위도 첫째(48.6%), 둘째(44.8%), 셋째(5.8%)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모유수유하는 영아는 알려지지 않다가 87.6%, 조제유를 수유하는 영아는 69.6%로 조제유를 수유하는 영아에게 알려지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36.5$, $p<.01$). 영아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성별, 개월 수, 출생 순위에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알려지 유무에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Table 1> Mother's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Breast fed mother (n=145)	Formula fed mother (n=112)	f(%) χ^2
Age(yrs)	Below 25	6(4.1)	5(4.5)	.05
	26-30	77(53.1)	61(54.5)	
	31 and older	61(42.1)	46(41.1)	
	No response	1(0.7)	0	
Employment	Employed	18(12.4)	16(14.3)	.15
	Unemployed	125(86.2)	96(85.7)	
	No response	2(1.4)		
Wanting more child	Yes	83(57.2)	49(43.8)	5.69*
	No	57(39.3)	62(55.4)	
	No response	5(3.4)	1(0.9)	
First skin contact with infant	Within the first day after delivery	82(56.6)	50(44.6)	4.05*
	Over 1day after delivery	61(42.1)	62(55.4)	
	No response	2(1.4)		
Resources (multiple responses)	Internet	123(84.8)	88(78.6)	3.56
	Book	74(51.0)	82(73.2)	15.2**
	Doctor	18(12.4)	48(42.9)	3.52**
	Nurses	7(4.8)	31(27.7)	25.5**
	Parents or Neighbors	86(59.3)	61(54.5)	4.04
	Mass media	7(4.8)	28(25.0)	22.7**

* $p<.05$, ** $p<.01$

타났다<Table 2>.

2. 수유방법에 따른 어머니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양육스트레스 정도와 비교

어머니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은 4점 만점에 모유수유모는 평균 평점 3.28(.42)점, 조제유수유모는 2.84(.35)점이었고, 두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8.80$, $p<.01$)가 나타났다. 즉, 모유수유모가 유의하게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는 영역별로 보면 모유수유모는 5점 만점에 부모영역 2.28(.77)점, 부모-자녀관계 영역 1.36(.34)점, 자녀영역 1.75(.53)점, 전체 1.80(.42)점이었고, 조제유수유모는 부모영역 2.86(.67)점, 부모-자녀관계 영역 2.83(.64)점, 자녀영역 3.28(.71)점, 전체 2.97(.48)점으로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6.33$, $p<.01$, $t=-23.4$, $p<.01$, $t=-19.7$, $p<.01$, $t=-20.6$, $p<.01$). 즉 모유수유모가 조제유수유모보다 양육스트레스의 전체 점수 및 3가지 하부 영역에서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 영역별 점수는 모유수유모는 부모자녀관계영역이 가장 낮고, 그 다음 자녀 영역, 부모 영역 순이었으며,

조제유수유모는 부모자녀관계영역, 부모영역, 자녀영역 순으로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다<Table 3>.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전체 대상자의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는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취업여부, 영아성별, 영아 개월 수,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4.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 상관관계

전체 대상자의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 정도는 $r=-.55$ ($p<.01$)로 통계적으로 강한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대상자의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 정도는 양육스트레스의 3 하부영역 모두에서도 역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5>.

논 의

<Table 2> Infant's general characteristics

f(%)

Characteristics		Breast feeding mother (n=145)	Bottle-feeding mother (n=112)	χ^2
Sex	Boy	82(56.6)	52(46.4)	2.55
	Girl	63(43.4)	60(53.6)	
Age	5 month	49(33.8)	29(25.9)	3.28
	6 month	48(33.1)	44(39.9)	
	7 month	48(33.1)	38(33.9)	
	No response		1(0.9)	
Birth order	First	79(54.5)	46(41.1)	5.87
	Second	58(40.0)	57(50.9)	
	Third	7(4.8)	8(7.1)	
	Over 3	-	1(0.9)	
	No response	1(0.7)		
Allergy	Yes	3(2.1)	34(30.4)	36.5**
	No	127(87.6)	78(69.6)	
	No response	15(10.3)	-	

** $p<.01$

<Table 3> Comparison of self-confidence in maternal role and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mother's feeding method

		Breast feeding mother Mean(SD)	Formula feeding mother Mean(SD)	t
Self-confidence in Maternal role	Total	3.28(.42)	2.84(.35)	8.80**
	Parent	1.80(.42)	2.97(.48)	-20.6**
Parenting Stress	Parent-Child	2.28(.77)	2.86(.67)	-6.33**
	Parent-Child	1.36(.34)	2.83(.64)	-23.4**
	Child	1.75(.53)	3.28(.71)	-19.7**

** $p<.01$

<Table 4> Differences of self-confidence in maternal role and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mother's and infant'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Self-confidence in maternal role			Parenting stress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aternal Age	Below 25	3.11(.45)			2.22(.77)		
	26-30	3.08(.47)	.07	.93	2.32(.70)	.10	.91
	31 and older	3.09(.43)			2.32(.78)		
Employment	Employed	3.04(.35)			2.41(.73)		
	Unemployed	3.09(.46)	-.58	.56	2.30(.74)	.77	.44
Infant's sex	Boy	3.10(.46)			2.31(.81)		
	Girl	3.07(.44)	.45	.66	2.32(.65)	-.19	.85
Infant's age	5 month	3.06(.44)			2.26(.71)		
	6 month	3.13(.46)	.74	.48	2.31(.70)	.41	.66
	7 month	3.06(.45)			2.37(.79)		
Birth orders	First	3.09(.45)			2.21(.67)		
	Second	3.08(.47)	.41	.75	2.43(.77)	1.96	.12
	Over third	3.17(.29)			2.35(.86)		

<Table 5> Correlations to self-confidence in maternal role and parenting stress

	Parenting stress	Parenting stress subscales		
		Parent	Parent-Child	Child
Self-confidence in maternal role	-.54**	-.39**	-.53**	-.45**

** p< .01

논의는 두 집단간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 어머니 역할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 정도, 어머니 역할과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대상자의 변수, 어머니 역할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 관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영아의 알려지는 조제유수유 영아보다 모유수유 영아에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영아에서 알려지, 아토피 발생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의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 정도는 3.06(1~4점 범위)으로 나타났다. 초산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Lee(1998)의 연구에서는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로 이루어졌으며 실험 전에는 3.2, 실험 후에는 3.19로 본 연구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 1~12개월 영아모를 대상으로 한 Lee 등(2003)의 연구에서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 정도가 2.89, Koo와 Moon(1998)의 연구에서 출산 후 4~6주 후 산육모의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 정도는 2.88(40.38/14문항), Yang과 Kim(2003)의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 정도는 2.78, Chung과 Han(1999)의 연구에서는 2.60으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 정도가 약간 높거나 낮은 결과였으나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 정도는 보통보다는 높은 결과로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 정도는 2.38(1~5점 범위)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고 영아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6개월 이하 첫 아기 영아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Kim 등(2005)의 연구에서는 2.4점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3~4개월 정상아 어머니와 퇴원 후 3~4개월 된 저출생체중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한 연구(Kim, 1998)에서 전체 영아모의 양육스트레스는 2.16으로 본 연구 결과보다는 조금 낮게 나타났다. 영아모 10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4~6개월 영아모는 2.79, 7~9개월 영아모는 2.90, 10~12개월 영아모는 3.32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났다(Shin, 1997). 영아모 대상 연구 결과를 통한 영아모의 양육스트레스 정도는 2.16~3.32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도 이 범위에 속하고 있다. 하지만 영아의 월령과 양육스트레스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Shin(1997)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월령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 영역별 점수는 부모의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있는 부모영역에서 2.57, 부모 자녀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부모-자녀 관계 영역에서 2.09,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를 느끼는 아동영역이 2.51로 나타났다. Kim 등(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영역 2.77, 부모-자녀관계영역 1.95, 아동영역에서 2.56, Kim(1998)의 연구 결과에서도 부모영역이 2.62, 부모 자녀영역

역이 1.76, 아동영역이 2.06으로 본 연구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양육스트레스 전체 중에서 부모 영역 점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아동 영역, 부모자녀관계 영역 순으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수유방법에 따라 나누어 보았을 때 모유수유모의 양육스트레스 영역별 점수는 부모 영역(2.28), 아동 영역(1.75), 부모-자녀 관계 영역(1.36) 순이었으며, 조제유수유모는 아동영역(3.28), 부모영역(2.86), 부모-자녀 관계 영역(2.83) 순으로 나타나 조제유수유모가 아동영역에서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제유수유모가 모유수유모보다 아동 행동 상의 문제로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하며, 조제유수유모가 모유수유모보다 자신의 아기를 더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연령, 취업여부, 영아의 성별, 영아개월 수, 출생 순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200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 아기의 개월수, 직업 유무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으나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결과가 있었다. Yoo와 Kim(2004)의 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평균 3.6세 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연령, 학력, 환아의 나이와 성별은 양육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Kang, Kim과 Son(2004)의 신생아 어머니 대상 연구에서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은 출생 순위를 제외한 어머니 연령, 직업 유무, 아기 성별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Lee, Lee, Kim, Kim과 Park(2004)의 신생아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는 직업이 없거나 자영업자를 가진 여성이 신생아 양육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 유형이 어머니 양육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생각한 것은 본 연구 결과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Kang(1998)은 고학력 전문직 여성은 보육형태에 대한 만족과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아서 실제 양육스트레스는 높지 않다고 본 견해와도 다르다. Kang(1998)은 여아를 둔 취업모가 남아를 둔 취업모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 결과와 다르며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 활동력과 행동 반경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 대상 영아는 남녀 행동 특성이 두드러지는 시기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고려는 제외하여도 좋을 것 같다. 대상자 특성 중에서 어머니 취업유형, 출생 순위가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국내 연구는 서로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는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 어머니의 수유방법에 따른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모(3.28)는 조제유수유모(2.84)보다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이 유의하게 높고($t=8.80$, $p<.001$), 모유수유모의 양육스트레스(1.80)는 조제유수유모(2.97)보다 유의하게 낮게($t=20.6$, $p<.001$)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은 양육스트레스 정도와 역상관관계($r=-.55$, $P<.001$)를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은 어머니 역할 적응에서 중요한 요인이며 자신감이 부족한 어머니는 자신의 과업을 실제보다 어렵게 판단할 수 있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Lee, 1992). 그러므로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이 높아지면 양육스트레스는 감소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는 조제유수유를 하는 어머니보다 수유와 관련된 양육 행동에서 영아와 상호작용 양을 증가시키며 이는 어머니의 영아 행동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감 증가와 동시에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신감이 높아진 어머니는 영아 돌보기 활동을 통한 부담감은 있으나 만족감이 크고 영아에 대한 지각을 긍정적으로 하면서 양육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은 양육행동을 통해 어머니와 영아가 보낸 시간의 양에 따라 형성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지지하는 연구로 Moon과 Koo(2000), Kim(2005)의 연구가 있다. Koo와 Moon(2000)의 연구에서는 간호중재로 Kang아루식 돌보기를 시행한 어머니군이 대조군보다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이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를, Kim(2005)은 마사지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미숙아 어머니는 퇴원 전보다 퇴원 4주후 대조군보다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이 유의한 차이로 증가하였음을 제시하였다. 양육행동 중 모유수유는 어머니의 의도와 실행 의지만 있다면 분만 후 자연스럽게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모유수유를 통한 생리적, 심리적 이점에도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을 높일 수 있으며 동시에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간호사가 임상현장에서 이러한 점을 좀 더 강조하여 모유수유 권장할 수 있어야 하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대상자 5, 6, 7개월 영아모 257명의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은 3.06(1~4점 범위)으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양육스트레스 정도는 2.38(1~5점 범위)로 나타나 보통보다 조금 낮았다.

모유수유모는 조제유수유모보다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이 유의하게 높고, 모유수유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조제유수유모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수유방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영역별 점수에서 모유수유모는 부모 영역, 아동 영역, 부모-자

녀 관계 영역 순이었으며, 조제유수유모는 아동영역, 부모영역, 부모-자녀 관계 영역 순으로 나타나 조제유수유모가 아동영역에서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은 양육스트레스 정도와 역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하지만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연령, 취업여부, 영아의 성별, 영아 개월 수, 출생 순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영아기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 전체 중에서 부모 영역 점수가 가장 높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조제유수유모는 양육스트레스 전체 중에서 아동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므로 수유방법에 따른 영아모 간호 중재 내용에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수유방법에 따른 어머니 역할 획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hn, O. S., & Oh, W. O. (2006). Relationship among Postpartum depression, parenting stress and self-esteem in mothers during puerperium.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10(1), 58-68.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Charlottesville: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 Consult Clinical Psychology*, 21, 407-412.
- Bang, M. R. (1984). *The influence of the traditional Korean childrearing culture on breast feed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Calandro, A. (2000). Nurses can facilitate a successful breast feeding plan. *Adv Nurs*, 2, 8-10.
- Choi, S. S., Lee, E. H., Youn, K. H., Sim, B. K., & Choi, N. H. (1996). The study on the incidence of breastfeeding and related factor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2), 222-234.
- Chung, E. S., & Han, M. E. (1999). A study on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in maternal role performance among primiparas. *Korean J Women Health Nurs*, 5(1), 79-88.
- Jang, Y. S. (2005). Effects of a workbook program on the perceived stress level,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breast feeding practice of mothers of premature infants. *J Korean Acad Nurs*, 35(2), 419-427.
- Jeong, G. H. (1997). *Effect of th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on promoting the breast-feeding practice in primipar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ang, H. K. (1998). *Dual career mothers'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The effects of mothers' value on women's traditional role and support syst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 Kang, K. A., Kim, S. J., & Son, E. J. (2004). A study on the mothers perception, caring-confidence, and attitude towards own newborn infant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0(3), 311-320.
- Kim, D. H. (1998). *A comparative study of parenting stress between mothers of normal neonate and low birth weight neonat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H. S., Oh, K. S., Shin, Y. H., Kim, T. I., Yoo, H. N., Sim, M. K., & Chung, K. H. (2005). Factors influencing parenting stress in primipara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1(3), 290-300.
- Kim, J. Y. (2005). Effects of a massage program on growth of premature infants and on confidence and satisfaction in the mothering role.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1(4), 381-389.
- Kim, S. G. (2003). *2003 Survey on the national fertility, family health and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S. J., & Yang, S. J. (1997). A study of primiparous womens' breastfeeding experiences. *J Korean Acad Nurs*, 27(3), 477-488.
- Koo, H. Y., & Moon, Y. I. (1998). Maternal perception of the newborn and confidence and gratification of mothering role. *J Korean Acad Nurs*, 28(4), 920-930.
- Lederman, R. P., Weingarten, C. G., & Lederman, E. (1981). Postpartum self-evaluation questionnaire: measures of maternal adaptation. *Birth Defects Orig Artic Ser*, 17(6), 201-231.
- Lee, H. J., Lee, S. A., Kim, M. H., Kim, Y. H., & Park, N. H. (2004). A study of parental knowledge and confidence in newborn care.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0(3), 262-271.
- Lee, J. H. (1998). The effect of a child care education for first-time mothers on newborn care behavior and confidence in maternal role. *Korean J Women Health Nurs*, 4(7), 322-331.
- Lee, S. O. (2003). A study breastfeeding knowledge, attitude and problem of breastfeeding in early postpartum period and breast feeding practice. *Korean J Women Health Nurs*, 9(2), 179-188.
- Lee, Y. E. (1992).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impact of an agreement on the means to achieve nursing goals in the early postpartum period of primiparous mothers and enhance their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in maternal role performa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Y. E., Kang, Y. H., Park, H. S., Hwang, E. J., & Mun, M. Y. (2003). Relationship of maternal perception of the infant temperament and confidence and satisfaction of maternal role.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9(2), 206-220.
- Moon, Y. I., & Koo, H. Y. (2000). The effect of kangaroo care on anxiety and confidence and gratification of

- mothering role in mothers of low birth weight infant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6(3), 281-290.
- Shin, J. Y. (1997). *The effects of postpartum depression on the parenting stress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Wong, D. L., Hockenberry, M. J., Wilson, D., Winkelstein, M. L., & Kline, N. E. (2003). *Nursing care of infants and children*. St. Louis: Mosby.
- Yang, M. S., & Kim, I. S. (2003). A study on the self confidence and nursing needs of maternal role performance in primiparas during postpartum period.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7(1), 19-32.
- Yoo, I. Y., & Kim, D. H. (2004). Parenting stress and needs of mothers of children with atopic dermatiti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0(4), 383-394.
- Yoo, I. Y., Lee, K. J., & Chae, S. M. (1998). A Comparative study of the parenting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working mothers related to child-care arrangements.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2), 159-169.